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8호

# 젯머리성황제



# 잣머리성황제



안산시 잣머리 성황제의 첫 번째 제주는 고려의 제상 서희다. 서기 972년 고려 광종 때 서희는 10년간 외교가 중단됐던 송나라 사신으로 길을 떠났다. 지금의 안산 성곡동 해봉산 아래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 잠잠하던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배를 띄울 수 없어 근처에 하룻밤 머물렀는데 꿈에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자신이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김부대왕) 비의 어머니였다. 나라가 망하고 비명에 죽은 것이 한이 돼 딸과 자신의 혼령이 배회하고 있으니 거처를 마련해 줄 것을 청했다. 서희는 이튿날 작은 성을 쌓고 사당을 지었다. 화공을 불러 꿈에 본 영정을 그려 모시고 위령제를 지냈다. 그러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서희는 탈 없이 송나라에서 외교임을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부터 중국을 드나드는 사신은 물론 이곳 백성들도 이 사당에 제물을 차려놓고 극진히 정성을 드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멀리 떠나는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연로한 부모님

의 건강을 빌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을과 나라의 안녕을 비는 일에는 누구도 게으르지 않아서, 성황제는 그 때로부터 천 년 동안 이어졌다.



올해로 여든 한 살인 성곡동 동민회 흥한기 회장은 오줌싸개 시절부터 곁판에서 던져준 떡을 받아먹으며 자랐다고 회상했다. 흥 회장뿐 아니라 5대째 성곡동에서 살고 있는 흥회장네 가족들은 매년 어김없이 설이 돌아오고 단오가 돌아오고 추석을 쇠고 단풍 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과 같이 해봉산 성화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성황제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성곡동은 5개 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각 부락마다 성황제를 위해 떡을 찌고 술을 빚어 성황당으로 모였다. 옆집 뒷집 아저씨와 삼촌들이 돼지를 잡고 풍물을 했다. 동네 사람들을 전부 만날 수 있었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두의 복을 빌었다. 제는 부정물림으로 시작해 산바레기, 군웅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상산호굿거리, 대신거리, 뒷전의 순서로 진행된다. 뒷전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은 성황신의 공수를 받으러 모여든다. 당주의 공수를 받은 사람들

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장만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풍물놀이도 하면서 밤을 새워 논다.



젓머리성황당은 1920년대 초에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도 붕괴와 화재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 지금 사용하는 신당은 90년에 재건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자기 집의 담이 무너지면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황당을 고치고 관리했다. 흥 회장이 성곡동동민회를 결성한 건 87년이다.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결속을 다지며 성황제의 전통을 지켰다. 젓머리성황당은 안산시 향토유족 1호로 지정됐고 젓머리성황제는 2015년 경기도무형문화제 58호로 지정됐다.

현재 동민회가 예능보유단체가 돼 서낭기 모시기와 서낭님가락 등을 칠수 있는 전수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은 80대고 배우는 사람들은 5~60대다. 이들 중에는 외지로 나가 일을 하다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통 지키기에 나선 사람도 있다. 평생 배우거나 지킨다는 생각 없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성황제를 의식적으로 전승하고 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흥 회장과 마을사람들은 경기도무형문화제로 지정되고 나서 성황제에 보다 큰 애정을 갖게 됐다.



흥씨부인(현재)



흥씨부인(박금순 소장, 1950년대 추정)

성곡리만의 독특한 풍물 가락이며 제의 형식, 무엇보다도 서로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도 가을이 무르익은 11월의 화창한 날에 다함께 해봉산에 오를 것이다.

## 잣머리 성황제의 사전적 설명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는 잣머리마을 주민들이 마을 수호신에게 안녕과 무병·풍년을 빌기 위하여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예전에는 신곡맛이 성황제라고 불렀다. 고려 성종 때부터 내려오는 마을신앙으로 제당에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비(妃) 홍씨와 장모인 안씨를 모시고 있다. 마을굿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는 매년 10월 초순에 길일을 잡아 안말·도란말·벌말 등 인근의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현육각을 대동하고 장군놀이·신장놀이·대감놀이·대신놀이·줄타기 등을 펼친다.

연원과 변천은 다음과 같다. 고려 제6대 성종[982~997] 때 내부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꿈에 나타난 혼

령[경순왕인 김부대왕의 비 흥씨와 친정어머니 안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를 지내준 후 무사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전설이 있다. 잣머리 성황당에 관한 가장 오래 된 문헌은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안산군조의 사묘(祠廟) 편에 “성황사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전자는 군자산(君子山)의 성황당을, 후자는 잣머리 성황당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이 책은 1481년(성종 12)에 완성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정정하여 1486년(성종 17)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다시 증보하여 만든 것이므로 잣머리 성황당이 조선 초기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는 원래 1년에 두 번, 봄가을로 봄 성황제와 가을의 신곡맞이 성황제를 지내 왔으나 봄 성황제는 5·16군사정변 이후 그 명맥이 끊어져 버렸다. 봄 성황제가 오히려 가을의 신곡맞이 성황제보다 그 규모가 훨씬 컸으며, 그 기간 또한 몇 달씩 걸리는 방대한 규모였다고 한다.

잣머리 성황당은 3칸짜리 기와집이었으나 1920년 초에 불타 버렸다. 그 후 양기와 3칸짜리 성황당을 다시 지었으나 1960년대 초에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목내동 최씨가 사재를 털어 벽돌 양옥 3칸짜리 당집을 지었으나 이것도 1981년 1월 19일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후 다시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 시멘트 벽돌로 슬레이트 지붕에 26.45㎡짜리 당집을 마련하였고, 매년 가을 신곡맞이 성황제를 지내 왔다. 현재의 신당은 1990년에 복원하였으며 992㎡ 정도 되는 자리에 콘크리트 기와지붕으로 지은 당집 형태이다. 면적은 약 49.9㎡ 정도이며 단청을 입혔다.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의 신곡맞이는 대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이 중 몇 가지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물림→ 산바레기→ 군웅거리→ 장군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상산호긋거리→ 대신거리→ 뒗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뒗전을 마치면 마을 사람들이 성황신의 공수를 받으려고 모여들고 당주는 각 사람에게 공수를 내려주고 신곡맞이를 끝낸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면 미리 장만해 놓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때에 즐광대의 즐타기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면서 밤을 새우며 논다.

(출처 : 디지털안산문화대전(<http://ansan.grandculture.net>))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는 잣머리마을 주민들이 마을 수호신에게 안녕과 무병·풍년을 빌기 위하여 올리는 마을 제사이다. 예전에는 신곡맛이 성황제라고 불렀다. 고려 성종 때부터 내려오는 마을신앙으로 제당에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비(妃) 홍씨와 장모인 안씨를 모시고 있다. 마을굿 형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성곡동 잣머리 성황제는 매년 10월 초순에 길일을 잡아 안말·도란말·별말 등 인근의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현육각을 대동하고 장군놀이·신장놀이·대감놀이·대신놀이·줄타기 등을 펼친다.

안산 잣머리성황제보존회

문의 : 안산문화원

전화 : 010-5283-7115